

영유아를 위한 정책과 재정투자는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일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한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PECERA) 회장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국가가 부를 쌓고, 성과를 훤히 쌓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인재를 어려서부터 잘 기르지 않으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국가 인적자원을 어려서부터 기르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49년 정부를 수립한 후 최빈국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한 결과, 1970년대부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경제를 빼른 시일 내에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인적자원의 힘을 톡톡히 본 것이다. 이제 한국은 수출도 많이 하고 민주주의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발전의 기틀을 지속 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과거 조상의 업적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나라들처럼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는 데 실패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루터의 말대로 양질의 국가인적자원을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길러내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최근 뇌를 연구하는 의학자 및 뇌생리학자들은 영유아기에 뇌에 긍정적 경험을 많이 쌓아주는 양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안정되고, 분노·속상함·공격적인 마음을 조절할 줄 알며, 세상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세상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성향은 EQ(감성지능)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앞으로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은 EQ를 기르기보다는 영어 등 과목별 지식 교육을 하는 데 집중된 데 있다. 먼저 길러 주어야 할 EQ보다는 지식 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뇌의 여러 부분 중 운동기능과 정서적 안정을 관장하는 뇌가 더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는 EQ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반대로 지식 가르치기에 몰입하고 있다. 인성이니, EQ는 어렸을 때 뇌에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린 지금 혀다리를 짚으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국가는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책, 재정투자에 인색하고, 학부모들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 것만하고 있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영유아기에 인성교육의 기틀이 잡히지 않고 도덕성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다면 큰 다음 이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뇌 연구가들이 보고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환경과 교육과 보육 환경을 향상시키는 일을 안 하고 있다.

1950년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정책 표어를 주창할 때에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격이 나쁘면 허사다”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오로지 지식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사이코 패스’여서 그렇다 든지,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 한 명 뒤에는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사건이 수 백번 일어났음을 보여준다는 범죄심리학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길러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린 떡잎에 바늘구멍이 나면 잎이 커졌을 때 1cm도 넘는 큰 구멍이 되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영유아들을 국가인적자원으로 제대로 기르는데, 우리 모두 시간·노력·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살아가기 무서운 사회로 바뀌기 전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무언가를 심각하게 시작해야 한다. 2008년 4월 미국의 듀보위츠는 1318명의 아기를 출생부터 만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연구한 결과 학회지에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신체적, 성적학대 못지않게 훗날 공격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음식 제 때 먹기, 편안한 보금자리,

사랑받기, 정서적 안정감 얻기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고통을 느끼다가 혹날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콜로라도대학의 올즈 박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는 보고도 하였다. 지금 곧 생산성이나 경제 상태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커서 이들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지금 영유아에게 정책과 재정을 투자하자.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이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도 추진 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성 분석

본 연구는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양육 관련 재정지원이 보육서비스 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출산 관련 요인 등에 미치는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원방식의 변화가 보육시설 운영이나 부모의 인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 표준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본 연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개인 특성, 이용시간을 반영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와 물리적 환경 구성을 유도하고자 함.

■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질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육아지원기관 질관리 정책을 참고하여, 육아지원기관 평가 활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수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